

[안내] 본 자료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준법감시인 심사필 승인 시점(2026.01)의 시장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자산 Market Recap (25.10)

커스터디 라이선스 시대 : 규제가 경쟁력이 되는 순간

Editor: 김규태 tony@inexkr.com

Analyst: 김종현 kiri@inexkr.com

Summary

- 시장 규모 :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은 2024년 약 396억 달러 → 2030년 534억 달러(CAGR 5.1%) 전망.
- 주요 시사점 : Coinbase Custody AUC가 2025년 2분기 2,4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 (ETF 보관 비중 80%+).
- 산업 구조 재편 : ① 거래소, 기술 인프라 연계형 ② 전통 금융기관형
- 규제 = 경쟁력 : 미국, 유럽, 아시아(일본, 홍콩) 중심으로 커스터디 체계 표준화 및 관련 규제 정비중.
- 기술 vs 신뢰의 균형 : 속도, 확장성(스테이킹, 온체인 자동화)과 내부통제, 감사, 보험으로 차별화.
- 한국의 전환 국면 :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축으로 외부 수탁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내 중장기 방향 : 커스터디는 보관을 넘어 회계, 세무, 리스크, 결제가 통합된 B2B 플랫폼으로 진화.

Key Issue

인엑스(INEX)가 주목하는 시장의 전환점 — 커스터디, 제도권 자금 유입의 관문

2025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은 ETF 승인과 법인 거래 허용으로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중심 자산 관리'로 전환 중이다. 이 전환의 핵심이 커스터디(Custody)다. 인엑스(INEX)는 규제 인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이자, 보관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적격 커스터디 사업자로서, 이러한 시장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단순한 보관 서비스가 아니다.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 조건이자 신뢰를 담보하는 금융 인프라다. Coinbase는 2025년 2분기 2,457억 달러 수탁자산을 기록하며 미국 디지털 자산 ETF의 80% 이상을 보관 중이다. 이러한 수치는 커스터디가 이미 기관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규제 환경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미국, 유럽, 아시아(일본,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제도를 정비하며 면허 기반 시장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산업 구조는 기술(거래소-핀테크)과 전통(은행-금융기관)의 경쟁 구도로 재편되며, 이 균형점에서 차세대 표준이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통해 커스터디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커스터디는 '누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며, 그 신뢰는 자금 흐름을 결정한다.

1 시장 주요 이벤트

INEX 소식

- 인엑스, 은행 실명계좌 확보 위한 핵심 요건 충족 [\(전문\)](#)
- 인엑스, AML 시스템 고도화 완료..."국내 6번째 원화거래소 도약" [\(전문\)](#)

글로벌

- 월스트리트 10대 은행, 스테이블코인 공동 개발 착수 [\(전문\)](#)
- 美 뉴욕시,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실' 신설...크립토 수도 본격화 [\(전문\)](#)

국내

- 국가 주도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디지털 정부 '속도' [\(전문\)](#)
-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스테이블코인 활용-제도 필요성 집중 논의 [\(전문\)](#)

디지털 자산

-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보관 넘어 금융 인프라로 진화 [\(전문\)](#)
- 리플, 글로벌 금융을 위한 XRP와 RLUSD,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글로벌 시장 연결 [\(전문\)](#)

규제

- 비트코인 세금 면제 ... 미국 상원 "루미스법 암호화폐 전면 수정" [\(전문\)](#)
- EU, 양도 불가형 디지털 자산' 규제 공백...블록체인 샌드박스로 해법 모색 [\(전문\)](#)
- 日, 가상자산 규제 완화...은행계열 증권사도 거래 허용 추진 [\(전문\)](#)

Upcoming 주요 일정

일자	관련 자산	이벤트 내용
2025-11-04	XRP	RIPPLE SWELL 2025
2025-11-06	-	영국 BOE 금리 결정
2025-11-12	ADA	CARDANO SUMMIT
2025-11-13	-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2025-11-17	ETH	Devconnect 2025 (ARG)

2 인사이트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의 성장세와 산업적 재편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Research & Markets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시장은 2024년 약 396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약 53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CAGR 5.1%).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 내 주요 커스터디 사업자의 수탁 자산(AUC, Assets Under Custody)은 2024년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Coinbase Custody의 AUC는 2025년 2분기 기준 약 2,45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ETF 시장 내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확대에 의한 결과다(출처: Coinbase Q2 2025 Shareholder Letter). 현재 Coinbase는 디지털자산 ETF 자산의 80% 이상을 수탁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Coinbase를 주요 커스터디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커스터디 산업이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ETF 운용과 기관 자금 유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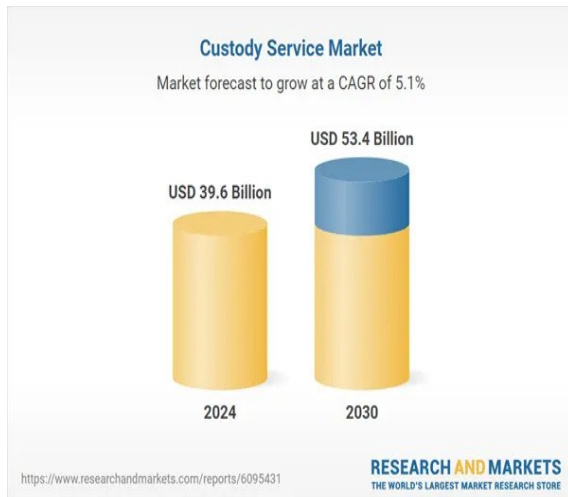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and Markets, 2025



Figure 2. Coinbase Q2 2025 Shareholder Letter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디지털자산 가치 상승의 결과가 아니다. 핵심 원인은 '규제된 환경에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신뢰 인프라'에 대한 기관의 구조적 수요 증가다. ETF 운용사, 헤지펀드, 연기금 등은 규제 미비나 보안 리스크를 이유로 시장 참여를 유보해왔지만, 커스터디 제도화 이후에는 규제 친화적 통로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공급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거래소 내부의 단순 보관 기능이 중심이었지만,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운용사, 기술 기업이 각각 전문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커스터디 시장은 기술 중심(거래소, 디지털 자산형)과 전통 금융기관 중심(은행, 운용사형)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각 모델은 규제 정합성, 자산 보안, 수익 구조 다변화를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커스터디가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 디지털자산 운용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 환경 : 면허가 곧 경쟁력

커스터디 산업의 성장은 언제나 규제와 제도화 속도에 의해 좌우된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누가 먼저 규제 프레임 안에서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5년 Interpretive Letter 1183를 통해, 연방 인가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의 보관(custody), 결제, 거래 실행(execution)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수탁기관(sub-custodian)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OCC는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기존 은행의 자산보관 업무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며, 은행이 다음과 같은 범위의 서비스(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위탁 형태로 관리, 고객 요청에 따른 자산의 매매, 송금, 결제,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거래 정산 처리, 세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지침은 커스터디 업무가 더 이상 비규제 영역이 아닌, 은행권 내부의 규제 프레임에 포함되는 제도권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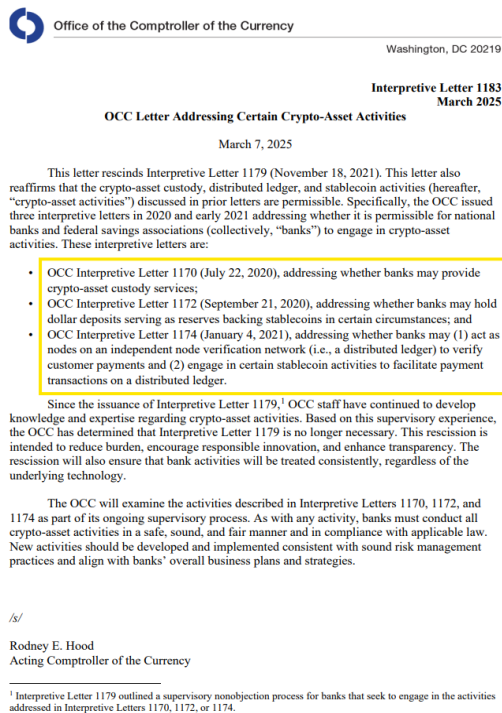


Figure 3. OCC Interpretive Letter 1183 (March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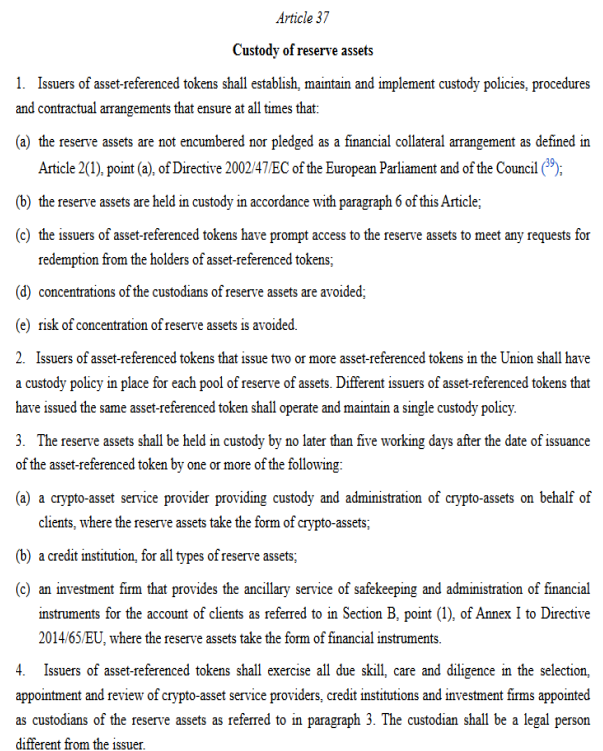


Figure 4. EU MiCA Article 37 — Custody of Reserve Assets

유럽은 MiCA 시행을 계기로 커스터디 인가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MiCA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거래, 보관 서비스를 명확히 규제 범위에 포함했으며, 각국 감독당국은 발행자, 거래소, 수탁업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은행과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규제 인가형 커스터디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Standard Chartered, SEBA Bank는 규제 인가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를 운영하며, 은행 중심의 제도권 커스터디 모델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내 커스터디 시장이 기존의 거래소 중심 구조에서 금융기관 중심의 인프라형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시아 역시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결제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보관, 결제 서비스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며, 금융기관이 관련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홍콩은 2023년 6월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금융관리국(HKMA)을 중심으로 은행 및 신탁사 대상 커스터디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한국은 '법인 거래 허용 로드맵'을 통해 기관 시장 개방을 준비하며, 제도권 커스터디 체계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거래소가 법인 고객 자산을 외부 커스터디 기관에 이관할 의무는 없지만, 법인 거래 확대는 도산분리 원칙과 외부 수탁 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제도 준비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거래소 자체 보관 방식에서 금융기관 중심의 인프라형 커스터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면허 획득 역량이 곧 시장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각국의 면허 요건이 세분화되면서, 커스터디 시장의 공급 구조 자체가 규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즉,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이 새로운 경쟁 축을 형성하며, 커스터디 산업은 면허 기반 시장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커스터디 산업에서 규제는 더 이상 단순한 진입 장벽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선제적으로 충족한 사업자는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와의 협력권을 확보하는 경쟁 우위를 얻는다. 이 때문에 글로벌 주요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보안, 회계감사, 보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며, 규제 대응 자체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 : 기술과 신뢰를 상품화하는 시장

이와 함께 글로벌 커스터디 시장은 기존 거래소 주도 모델에 더해, 은행, 운용사, 기술 인프라 기반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기관은 직접 커스터디 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인프라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커스터디 산업의 본질은 '신뢰(trust)와 기술(technology)의 공존'이다.

신뢰의 축을 대표하는 것은 은행과 전통 금융기관이다. Standard Chartered, SEBA 등은 축적된 내부통제, 감사 체계를 커스터디 서비스에 적용하며, 규제 친화적 모델을 통해 제도권 신뢰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형 기관과 연기금,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규제와 거버넌스 중심의 커스터디"를 표준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접근은 자산 보관의 법적 안정성, 보험 커버리지, 감사 추적성을 강점으로 삼고 있다.

반면, 기술의 축을 대표하는 거래소와 기술 인프라 기반 커스터디 사업자들(Coinbase, BitGo, Fireblocks 등)은 보안 아키텍처와 온체인 자동화, 그리고 스테이킹 등 확장성과 수익모델 혁신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속도와 유연성, 그리고 네트워크 연동력은 기술을 기반한 커스터디의 핵심 경쟁력이며, 이들은 높은 기술 진입장벽을 구축하여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재 커스터디 시장은 "신뢰를 제도화하려는 금융기관"과 "기술로 신뢰를 재정의하려는 기술 인프라 사업자" 간의 경쟁으로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양 극단의 경쟁이 상호 배제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점진적으로

통합되고 있다. 대형 은행들이 BitGo, Fireblocks와 같은 기술 제공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주요 거래소들이 자체 커스터디 면허 취득과 규제 준수 체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이를 증명한다. 향후 시장의 무게중심은 단순한 자산보관에서 운용 인프라로 이동하며, 신뢰와 기술, 수익성을 모두 갖춘 커스터디 모델이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Table 1.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 기술 중심형 vs 전통 금융기관형

구분	기술 중심(거래소, 디지털 자산형)	전통 금융기관 중심(은행, 운용사형)
대표 주체	Coinbase, Fireblocks, BitGo 등	Standard Chartered, SEBA Bank 등
핵심 경쟁력	보안 아키텍처(MPC, Cold Storage) 온체인 자동화, 빠른 자산 이동성	내부통제, 감사체계, 규제 준수, 보험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서비스 확장 방향	스테이킹, DAO, Web3 연동	기관 대상 신탁형 서비스, 회계·감사 연동
시장 포지셔닝	빠른 혁신과 네트워크 확장 중심	제도권 신뢰 기반
비즈니스 모델	기술 중심 모델, 수수료, 수익 분배형 구조	인가형, 관리보수 및 신탁 수수료형 구조
한계 및 리스크	법적 독립성, 보험 커버리지 부족	기술 혁신 속도 제한, 수익모델 다양성 부족

한국 시장 전망 : 법인 시장 진입과 단계별 성장 로드맵

한국의 커스터디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법인 거래 허용에 따른 기관 수요 확대와 회계 투명성 요구로 인해 성장 기반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은행권과 증권사는 커스터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으며,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커스터디 사업 분리 사례처럼 국내 역시 유사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구도는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은행 중심의 견고한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는 제도권 커스터디의 빠른 정착을 가능하게 하며, 엄격한 AML 체계는 기관투자자가 요구하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킨다. 이는 법인 및 기관 중심의 커스터디 시장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국내 커스터디 산업은 3단계 과정(Phase 1~3)을 거쳐 기관 중심의 수탁 서비스에서 일반 법인 중심의 디지털 자산 관리 인프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다변화를 넘어, 국가 차원의 자금 세탁방지(AML), 회계 기준, 세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 안정적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다. 아래 [Table 3]은 금융위원회의 법인 시장 개방 로드맵을 기준으로,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커스터디 서비스 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3.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 및 단계별 커스터디 서비스 전망

구분	허용범위	허용대상	예상 커스터디 서비스
Phase 1 (2025년 2분기)	제한적 허용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 대 상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	Basic Custody Infrastructure - Wallet & Custody - Multi Asset Support (BTC, ETH, SOL 등) - Compliance & Policy Control (AML, ISMS, Travel Rule)

Phase 2 (2025년 하반기 예정)	거래 시험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대상 매매 일부 허용	Institutional Investment Custody Services - Third-Party Custody Infrastructure - Custody-Linked Trading & Settlement - AML, Accounting & Compliance Automation
Phase 3 (시기 미정)	전면 허용	일반 법인 대상 전면 거래 허용	Corporate Expansion & CaaS - Custody-as-a-Service (CaaS) - Multi-Strategy Support (Trading, Staking, Treasury) - Accounting & Compliance Toolkit

* Phase별 시점은 금융위원회 로드맵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며, 실제 시행 일정은 제도화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Phase 1 (2025 상반기): 제도권 편입의 초입기

20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이다. 이 단계에서 커스터디 서비스의 주력 기능은 자산의 보관 및 실물화폐 전환이다. AML, ISMS, 트래블룰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은행, 신탁사 중심의 커스터디 서비스가 우위를 점하게 된다. 특히 법집행기관의 범죄수익 환수와 비영리법인의 기부·후원 자산 관리 수요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Phase 2 (2026 상반기~): 전문투자자 중심 매매 시범 운영

2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약 3,500개사)을 대상으로 투자,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 허용된다. 시장은 단순 보관 중심에서 거래 연동형 커스터디 서비스로 확장되며, 특히 제3자 수탁 구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단계의 핵심은 거래 투명성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다.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확인을 강화하고, 제3의 보관·관리기관 활용을 권고하며, 투자자 공시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서비스는 실시간 거래 정산, 강화된 AML 모니터링, 회계 자동화 모듈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Phase 3 (시기 미정): CaaS(Custody-as-a-Service)로의 확장

3단계는 일반 법인을 포함한 전면적 시장 개방 단계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와 보관이 완전히 허용될 경우, 커스터디 산업은 SaaS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웹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다양한 자산 운용 전략(거래, 스테이킹, 트레저리 관리)과 관리 기능(회계보고, 내부통제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CaaS(Custody-as-a-Service) 모델의 도입이다. 이는 클라우드형 커스터디 인프라가 기업 회계시스템, ERP, 국세청 신고 모듈과 연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의 핵심 백엔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은 단순히 거래 허용 범위의 확대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 인프라 내에서의 디지털 자산 정착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Phase 1이 규제 준수형 인프라의 토대를 다진다면, Phase 2는 전문투자자 대상 거래 인프라를 통해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 Phase 3는 커스터디를 완전한 기업용 금융 플랫폼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 또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소, 은행, 신탁사 중심의 면허형 사업자가 주도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계, 세무 연동 API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클라우드 기반 커스터디 솔루션 사업자가 시장의 주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국내 커스터디 산업의 발전 방향은 “규제 정합성 → 운용 효율성 → 서비스 개방성”의 3단계 순환을 통해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흡수되는 경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

Outlook

커스터디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화를 상징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기관자금 유입을 위한 '안전한 보관 체계'로 기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계, 세무-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B2B 금융관리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CaaS(Custody-as-a-Service) 모델의 등장은 커스터디 산업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변화다. 이는 기업이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웹 기반으로 자산을 보관, 회계처리, 보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Web3 회계, DAO 트레저리 관리, 기관 스테이킹 등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커스터디는 이제 거래의 부속 서비스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이자 신뢰의 구조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ETF가 유동성을 열었다면, 커스터디는 그 자금을 담는 '금융의 금고'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커스터디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도적 준비를 마쳤고, 아시아 금융허브들은 이를 따라가고 있다. 한국 역시 법인 거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커스터디 산업의 경쟁 구도에 진입할 것이다. 투자자에게 커스터디는 단순한 기술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누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의 경쟁이며, 그 신뢰는 자금 흐름을 결정한다. 2025년 이후 커스터디 시장은 단순한 수탁 비즈니스를 넘어 금융 신뢰의 패러다임 전환점 위에 서 있다.

Contact Us | 문의처

Partnership 및 Listing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Partnership 관련 문의 : partnership@inexkr.com

Listing 관련 문의 : listing@inexcoin.com

Disclaimer | 면책조항

본 자료는 투자자 및 파트너의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자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투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에 포함된 정보와 수치는 당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공개 자료와 리서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나 수익률은 미래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 투자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기반한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당사는 본 자료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작성자의 독립적인 분석에 따른 것이며, 당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INEX에 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복사, 배포, 전재할 수 없습니다.